유럽에서 잘나가는 담양 딸기

'죽향'·'담향' 2040년까지 품종보호권 확보

육묘·재배·유통 부가가치 창출
세계 종자시장 선점 경쟁력 확보

담양군이 자체 개발한 딸기 품종 '죽향'(사진)과 '담향'이 유럽에서 2040년까지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해당 품종은 죽향과 담향으로 유럽연합품종사무소(CPVO·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품종보호권은 보호 품종의 종자를 세계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증식과 생산, 수출, 수입, 양도, 대여 등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품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뿐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개발된 품종을 바탕으로 응용 품종 개발의 원천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연구에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죽향과 담향은 담양군이 육종한 딸기 품종으로 2017년 국내 품종출원 이후 유럽 현지 심사기관에서 품종등록 요건인 재배심사를 거쳐 심사기준에 알맞은 평가를 통해 인증됐으며, 네덜란드 나크투인보우(Naktuinbouw)에서 인증 딸기묘를 관리하고 있다.

유럽에서 우수종묘 품질 인증묘 체계를 갖춰 종묘 수출기반을 마련했으며, 유럽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맛과 향이 우수한 품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담양의 딸기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육묘, 재배, 유통, 가공, 체험 등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세계 종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품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화순군, '바이오헬스 지식산업센터' 건립

백신산업특구에 320억 들여
40개 기업 입주…연구동 등 갖춰

화순군은 화순백신산업특구 생물의약산업단지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

화순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연면적 1만7000여㎡,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4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 공간과 별도의 공동 연구동, 생산동, 기업 홍보관, 비즈니스 카페, 세미나실, 게스트 룸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화순군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생물의약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 벤처기업 특화 연구, 생산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바이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화순을 생물의약산업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한전공대 진입도로 이달 착공…내년 말 완공

나주시는 이달 중으로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들어가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진입도로는 총길이 643m, 왕복 4차선(폭 25~28.5m)으로 공사비 3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2022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선도 대학'으로 오는 2022년 3월까지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선다. 대학원과 학부 등 학생 1000여 명, 교수와 직원 각 100명 등 '작지만 강한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

한전공대 개교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이번에 진입도로를 착공하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통신 등 추가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나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나주시는 진입도로가 국지도 55호선(남평~세지)에서 산포면 송림리를 경유해 빛가람동으로 진·출입하는 도로 기능도 하게 돼 혁신도시 접근성 향상과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함평군, 식품공중위생·음식문화 개선 최우수

전남도 22개 시·군 평가 결과

함평군은 전남도가 실시한 올해 시·군 위생업무 평가에서 식품·공중위생, 음식문화 개선 2개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전남도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등 식품위생 관리 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국·도정 역점시책 등 총 40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 예방활동과 위생환경 조성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 부문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함평군은 도민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구입비 지원, 음식 제조업체(배달음식 전문점 등)에 대한 위생등급제 적용 등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음식문화개선 부문에서도 위생지도원 위촉(희망일자리·관광지 방역요원), 비접촉식 체온계 무상 지원, 관광지 위생업소 편의시설 확충 등이 호평을 받았다.

함평군은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표창과 함께 내년도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1000만원과 포상금 150만원을 확보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나주시 남파고택 문화재 활용 문화재청장상

종가 내림음식·읍성권 투어 연계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호평

나주시가 남파고택에서 실시한 '명사와 함께하는 고택 스테이-남파고택' 사업이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문화재야행 36곳, 생생문화재 159곳,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113곳, 전통산사 문화재 38곳, 고택·종갓집 39곳 등에서 진행됐다. 고택·종갓집 활용 분야 우수 사업에 선정된 남파고택 사업은 전통 자원과 문화적 가치를 콘텐츠화해 목사고을 나주의 멋과 맛, 그리고 흥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남파고택(南坡古宅·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은 호남지역 대표적 양반집으로 지은 지 100년이 훨씬 넘은 고택이다.

전남 최대 규모의 단일 개인 주택으로 관아 형태를 모방하고 있으며 집안의 내력과 함께 시대적 특징을 잘 간직해 민속학뿐만 아니라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나주시는 이 남파고택 종갓집의 내림음식과 전통 생활문화, 고택 주변에 위치한 나주읍성권 문화재 투어를 연계해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예방 편의의자 1만개 보급

장성군은 불편한 자세로 단순 반복 노동을 하는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편의의자 1만개를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 농업인이 수확물 선별 등 손목, 팔, 어깨, 허리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노동을 주로 하는 점에 착안했다.

편의의자를 사용하면 근육, 혈관, 신경에 무리가 가지 않아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장성군은 설명했다.

양쪽 골반에 고정 끈을 매어 쓰는 편의의자는 쪼그려 앉아서 일할 때 엉덩이 받침대 역할을 한다.

편의의자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개당 1000원의 비용에 장기간 임차할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착색료 감미료 無 합성향료